

지울 스님 다시 천성산으로



“유량조사 고의로 제외한 환경영향평가 못 믿어”

서에서 당초 합의에 의해 진행키로 했던 계곡의 유량 조사가 빠졌기 때문이다. 터널 공사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계곡의 유량 변화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자료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핵심사항이었고 당연히 돼 있을 줄 알았던 유량조사는 스님이 생사를 해매는 동안, 고의적으로 제외됐다. 이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이번 환경영향평가마저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도농농소송에서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의 부재를 의미했다.

유량조사가 빠진 것을 안 스님은 그래서 마음이 더 급해졌다.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간헐계곡, 안적계곡, 가사암 계곡에 유량 측정을 위한 장비를 설치했고 매일 유량의 변화를 기록할 민간유량조사단도 꾸렸다. 사강공사나 터널 공사로 인해 생기는 유량 변화를 수녀, 교사, 스님, 도농농의 친구 등이 돌아가며 매일 방문하고 수치를 기록하고 유량의 변화를 관측하게 되는 것이다. “언젠가는 남들처럼 천성산을 멀리서 바

라볼 필요도 있고, 또 천성산이 아닌 다른 것을 볼 수도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쓰는 일이라 믿고 있는 도농농 재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에 일을 버리지 못합니다.”

아직도 손 발에 감각이 없는 스님은 감각이 돌아오면서 극심한 고통을 시달리고 있

조사단 꾸리고 측정 장비 설치 암자 머물며 재판 자료 준비

다. 더 이상 나빠지지 않기 위해 하루 6시간 이상 운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스님은 “관심을 천성산이나 나에게 두지 말고 스스로에게 회향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또 어떤 환경을 후손들에게 남겨줄 것인지에 관심을 가지면 생명이나 환경문제에 대한 기준점을 찾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왜 극단적인 단식을 택했느냐는 비난이

많다고 하자, “어떤 게 더 극단적이에요?” 하는 물음이 되돌아왔다. 13억의 돈을 들여 진행된 환경영향평가서가 공사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쪽에만 맞춰져 있다면 그것이 더 극단적인 방법이 아닌가는 물음이었다. 그것은 5차례의 단식이 진행되게 했던 과장속의 약속 불이행을 포함한 사회적 부도덕성을 지적하는 물음이었다.

“처음엔 ‘단 한방울의 물도 새지 않는다’던 환경영향평가서가 ‘물이 새면 공법으로 막을 수 있다’에서 ‘조금의 물이 새는 것은 어쩔 수 없다’로 변했다”며 이번 환경영향평가의 한계를 지적했다. 앞으로 지울 스님은 천성산 암자에 머물며 민간조사단과 함께 조사활동을 벌이게 되며 도농농 재판 자료를 준비하게 된다. 아직은 손이 저려 제대로 글씨를 쓸 수조차 없지만 천성산의 봄이 희망처럼 피어나고 있기에 스님은 아픈 몸으로 천성산에 들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지역불교 일구는 우바이

김귀련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회장



부산의 사찰 합창단 단원들이 4월 19일 경연대회가 열리는 날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각 사찰 합창단이 한 무대에서 찬불가를 선보이는 합창제는 종종 있어 왔지만 실력을 겨루고 게다가 상금까지 있는 경연대회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불교음악이 발전해야 한다”는 대명제에는 동의하면서도 “어떻게”라는 방법론 앞에서는 모두 한결을 물러서 있는 동안,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김귀련(59·법명 감로수·사진) 회장은 자비를 내서라도 경연대회를 열겠다고 결행했다. 부산 불교합창단의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결단이었다.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에 소속된 36개의 합창단 중 18개 합창단이 참가 신청을 하고 연습에 돌입했다.

필요합니다. 아울러 부처님 가르침을 담아 전하는 불교음악의 발전을 위해서는 얼마나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김 회장은 4월 19일 열린 경연대회를 한그루의 사과나무에 비유했다. 작고 보잘 것 없는 나무라도 사랑과 관심으로 가꾸면 언젠가 알찬 열매를 맺는 나무로 자란다는 믿음 때문에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공덕원 합창단 단장을 시작으로 불교합창단 활동을 시작한 김 회장은 이제 36개 사찰 합창단 900여 명의 단원들을 내서라도 경연대회를 열겠다고 결행했다. 부산 불교합창단의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결단이었다.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에 소속된 36개의 합창단 중 18개 합창단이 참가 신청을 하고 연습에 돌입했다.

묘목 심는 마음으로 찬불가 경연대회에 정성

상금 사비로 충당... 실력 향상되는 계기되길

조직 내부의 불협화음을 겪고 있던 합창단연합회의 회장을 어렵사리 수락한 김 회장은 이왕 회장을 맡았으면 불교음악 발전과 찬불가 보급에 뭔가 뜻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용기를 냈다. 찬불가를 해외에 보시하기 위한 CD나 테이프 제작도 생각했지만 보다는 많은 이들에게 찬불가의 감동을 생동감 있게 전하기 위해 경연대회를 열기로 했다.

처음 여는 경연 대회라 시행착오도 많다. 상금으로 대상 300만원, 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 원 등 700여 만 원의 사비를 내었지만 행사 진행에 필요한 재정 충당이 고스란히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이번 경연대회 개최가 부산 불교음악 발전은 물론 전국적으로 합창단의 수준을 올리는 계기로 작용하길 기대하는 마음이 크다. 시간이 날 때마다 농장으로 달려가 트랙까지 몰며 사과 농사를 짓는다는 김 회장은 사과나무 묘목을 심고 돌아온 애기로 지금의 심경을 전했다.

“사과 한 알을 얻기 위해서도 나무를 심고 가꾸는 4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아무리 회장이 잘나도 각 합창단 단장들의 협조가 없으면 소용없고, 단장이 잘 나도 단원들이 없으면 단장도 소용없다”고 강조하는 김 회장.

남 앞에 서고, 또 무대에 오르는 합창단원들이기에 더욱 하심하고 양보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화합해야 한다는 게 김 회장의 신조다.

찬불가의 수준은 그 찬불가를 부르는 사람의 마음 만큼이기에 스스로의 마음가짐과 신행에 철저하려고 노력한다.

김 회장은 “사찰의 ‘꽃’이자 최고의 ‘일꾼’으로 통하는 사찰합창단과 불교음악의 발전은 결국 단원 한사람 한사람의 확고한 신심과 수행에서 우리나라 온다”고 강조하며 19일 저녁 6시 30분, 마음으로 전하는 찬불가를 들으며 부산문화회관에 와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천미희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불이야~” “초기에 진압하자”

법주사 동화사 선암사 등 전국사찰 소방훈련



부산 선암사(주지 원범)는 3월 27일 경내에서 초기화재진압훈련을 실시했다(사진). 이날 초기 화재 진압 훈련에는 부산진 소방서 소방대원 등 60여 명이 동참했다. 보은 법주사(주지 도공)도 같은날 관내 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했으며, 대구 동화사(주지 지성) 역시 24일 화재 초기대응훈련을 진행했다.

법주사와 동화사 소방훈련에는 소방차와 응급구호차량, 소방대와 군병력,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지역의용소방대 등이 참여했다.

천미희·여수령 기자

금정산 환경보호 캠페인 전개

세계선문화재단은 기획단은 부산 금정구·동래구·북구, 양산시와 함께 3월 26일 금정산 환경보호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5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최종 집결지인 금정산 북문 광장으로 오르면서 금정산 계곡과 산성주변의 쓰레기를 줍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종집결지인 북문 광장에서 열린 행사에서 법주사 주지 대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부산시의 자연문화적 혜택의 근원인 금정산을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천미희 기자

공병수 회장 취임법회

부산불교신도회(회장 공병수)는 3월 30일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제21대 공병수 회장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공병수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신도회관 건립추진위원회 결성, 복지 사업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중·고교 전일제특별반 개설

부산양정정초소년수련관(관장 범산)은 부산지역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06년 전일제 특별반을 개설한다.

“나도 해보자! 영화 만들기” 외에 26개의 과목으로 개설되는 전일제특별반은 4월~7월 사이에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양정정초소년수련관 다목적홀 등에서 진행된다. (051)868-0750

천미희 기자

해동용공사 대응전 낙성법회

바다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꼽히는 해동용공사(주지 정암)가 3년여에 걸친 대응보전 불사를 마무리하고 4월 8일 오전 11시 낙성법회를 봉행한다.(051)722-7744

천미희 기자

“체계적인 대사회 활동 벌일 것”

부산불교실업인회 창립 15주년 기념법회

부산불교실업인회(회장 김운환)는 3월 28일 부산 코모도호텔 총무실에서 창립 1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 김

로사 주지 혜종 스님, 허남식 부산시장, 설동근 부산시교육감, 김광삼 국제신문 사장을 비롯 회원 및 회원 가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했다.

2월 열린 정기총회에서 제9대 회장으로 재

추대된 김운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창립 15주년을 맞아 발보리심의 굳은 신심으로 불교발전과 지역발전에 더욱 노력하는 부산불교실업인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그 일환으로 그동안 해왔던 장학사업, 불우이웃돕기 등의 사업을 지속하고 보다 체계적, 진취적인 활동을 벌이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2006년도 임원단에 대한 임명패 전달과 함께 공로패 전달과 시상상을 통해 우수회원 표창도 함께 열렸다. (051)818-9914

천미희 기자

경허 스님에서 성철 스님에 이르기까지
큰스님 열아홉 분의 감동적인 일화!

큰스님 큰 가르침

불교방송 고승열전 작가 윤청광 지음

이런 큰 가르침이 널리 읽혀 무기력하고 나약한 현대인들에게 삶에 대한 의욕과 지혜가 새롭게 움텄으면 하는 바람으로 추천의 글을 쓴다.

— 법정 스님 ‘추천의 글’ 중에서

선방의 죽비처럼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는 가르침!

경허·한암·만공·현영·효봉·고암·청담·훈성·경봉·동산·만암·고봉·구산·성철 스님 등 기라성 같은 근대의 고승들의 업적과 인격을 생생한 실화를 통해 한눈에 보여주는 책!

양장 | 296쪽 | 값 10,000원



“법정 스님이 새벽 2시까지
읽으셨다는 책임입니다.”

시간이 그토록 늦은 줄도 모르고 감명 깊게 읽으셨다면 ‘읽고 힘겨운 게 모임’ 회원이라면 꼭 읽어보길 권한다는 당부까지 하셨습니다.

— 『읽고 힘겨운 게 모임』 2006년 2월호

할아버지의 기도

침대에 누고 두고 밤마다 아이들에게 하나씩 들려주고 싶은 따뜻한 이야기

레이철 레펜은 육체의 병을 치유하는 뛰어난 의사이면서 동시에 영혼을 치유하는 탁월한 영감술사다. 이 책에서 그대가 들려주는 아름답고 감동적이며 귀중한 이야기들은 걱정, 슬픔, 분노를 누르고 힘이 되게 바라보게 하는 지혜와 영감으로 가득 차 있다. — 고도원



레이철 나옴이 레펜 지음 | 유희목 옮김 | 328쪽 | 값 10,000원

E-mail: info@moonye.com TEL: 393-5681 FAX: 393-5685

문예출판사